

CGNTV 후원자 이야기 ‘선교하는 일상’

인터뷰

주선애 교수, 이훈 목사, 윤영미 아나운서
모델 박둘선



www.cgntv.net

185-4 CGNTV

T. 02-796-9800 F.02-749-6638



영적 풍요를 온 땅에...

Christian Global Network Television **CGNTV**



CGNTV는 풍성한 기독교 콘텐츠와 지구촌 감동 스토리로 세상에 행복을 전합니다.
지구촌 어디서나 24시간 방송되는, 글로벌 크리스천 방송의 중심!
CGNTV는 위성, 인터넷, 케이블, IPTV, 스마트폰 등 다양한 채널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Christian Global Network Television www.cgntv.net



CONTENTS

2013 가을호 vol.2

02 **프롤로그**
사랑의 이미지

Support

04 **CGN 스토리**
CGNTV 후원자 이야기

Mission

08 **선교에세이**
대만 금철 선교사

10 **선교지의 아침**
포토코멘터리 <CGNTV 여름 아웃리치>

Program

14 **인터뷰**
<반갑습니다> 진행자

18 **토크 인 토크**
모델 박들선

20 **제작후기**
다큐멘터리 <더 메시지> 홍주연 PD

22 **CGN 스페셜**
맞춤특강 <나침반> 남기업 소장 - 성경적 재테크

24 **CGN 초이스**
CGN성경연구 프로그램 / 시청방법 안내

News

26 **CGN 뉴스·해외**
미주, 일본 지사 / 대만, 태국, 아랍 제작센터

28 **CGN 뉴스·국내**
CGNTV 국내 주요소식

30 **편성표**

32 **후원안내**

Magazine **CGN**

매거진 CGN은 분기별로 발행되는 계간지입니다.

2013 9 14 (2) / CGNTV(www.cgntv.net 02-796-9800) /
/ / , / CGNTV / . / /
(02-757-3111)

185-4 CGNTV



· 시청문의 02)796-1118 / · 후원문의 02)796-2243



사랑의 이미지

복음은 텍스트(text)와 이미지(image)로 표현된다.

텍스트는 말 그대로 성경 속에 기록된 말씀이고,
이미지는 그 텍스트를 묵상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다.

성경에서 '사랑'을 묵상했다.

흔히 색깔에서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듯,
성경 속 '사랑'을 묵상하니, '진한 핏빛'이 떠오른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 흘리신 그 핏빛'.

마음에 젖어드는 그 빛깔을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진다.

핏 값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고,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고 싶다.

세상은 텍스트 자체로 변하지 않는다.

누군가가 그것을 실천할 때,
천국의 이미지, 복음의 이미지가 표현되는 것이다.

CGNTV는 선교지 곳곳, 텍스트와 이미지

모두를 나누며 달려가고 있다.

오늘도 복음의 불모지,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가 닿기를 소망한다.

진심이 서려있는 모습으로.

감동이 낳는 더 큰 감동 선교하는 일상

CGNTV 후원자 이야기

CGNTV의 후원자들을 만났다. CGNTV는 전적으로 후원으로 운영된다. 가을을 맞아 고마웠던 부모 혹은 누이와 대면하듯, CGNTV를 후원하게 된 그들만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모두를 만날 수는 없었지만 함께 한 몇몇 가정들의 모습을 보면, 또 다른 후원자들의 진심도 이들과 맥을 같이 할 듯 보였다. 이들은 모두 진심으로 CGNTV를 사랑하고 있었다. '선교'에 마음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생각에 가달고자 애쓰고 있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오랜 기간 후원자들

후원자 고덕훈(56·남) 씨는 CGNTV 초창기, 지금처럼 시청채널이 다양하지 않을 당시에 직접 안테나를 설치해 CGNTV의 발전 과정을 지켜본 시청자이다. 7년 여간 꾸준히 후원도 이어오고 있다. 그는 7년 여 사이에 헤비타트의 집짓기 사역에 참가하면서 CGNTV 프로그램에 출연한 추억도 있다.

지켜보고 격려하며 함께 추억을 만들고 있는 동역자. 그가 처음 후원을 시작한 것은 '선교를 위해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는 메시지 때문이었다. 그는 지금도 방송을 통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길 기도하고 있다.

후원자 용명희(55·여) 씨는 섬기는 교회 공동체 일원들과 함께 후원을 시작했다. 병원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 그녀는 CGNTV가 문화를 잘 접목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해 새신자들이나 믿음이 약한 이들에게 직접 알리고 있다고 한다. 그녀는 곧 아웃리치를 떠날 계획이라며, 선교지는 외로운데, 선교사들이 CGNTV를 통해 믿음의 이야기를 듣고 격려 받고 사역에 도움 받기를 바랐다.

후원자 김진국(58·남) 씨는 선교지를 위한 CGNTV의 사역이 자신의 경험에 비춰 더욱 몸으로 다가왔다고 후원의 계기를 밝혔다. 그는 1997년 직접 인도하는 찬양 팀과 함께 일본 선교지 교회를 방문했다. 그때 선교사들의 가족이 생각보다 힘들어하는 모습을 직접 보았다.

그는 CGNTV를 처음 만났을 때, 40대 중반 겪었던 그 기억이 문득 떠올랐다고 한다. 타지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는 선교사들에게 CGNTV가 보여주는 고국의 모습, 신앙생활의 모습, 친근한 목회자들의 모습이 굉장히 힘이 되겠구나 싶었다고 했다. 경제학 교수이기도 한 그는 전략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보았을 때도 "CGNTV가 귀히 쓰임 받을 것"이라며 담대하게 여러 가지 사역을 펼치길 바랐다.



또 다른 병원 선교

김성훈, 김봉비 부부 후원자 가정

김성훈, 김봉비 후원자는 인천에서 '온누리 내과'를 운영하고 있는 의사, 간호사 부부다. 병원을 시작할 때부터 선교 중심의 삶을 드리고 싶어 병원명도 어렵지 않게 '온누리'라고 붙였다. 슬하에 아들 셋을 두고 있는 부부는 병원을 중심으로 선교를 위해 돕고, 드리고, 섬기는 생활을 실천하고 있다. 4학년인 첫째 아들이 인턴부 당일 스리랑카 아웃리치를 다녀왔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문을 열면 'We care, God cures(우리는 돌보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라는 구절이 제일 먼저 보이는 그들의 병원 진료실에서 부부를 만났다.

병원은 언제 개원하셨나요. 병원명을 '온누리 내과'라고 지으신 이유가 있는지요.

2006년에 했어요. 병원명은 세계로 뻗어가는 꿈을 갖고 붙였지요. 선교 중심으로 가는 병원이 되고 싶었어요. 직접 나갈 순 없어서 후원으로 역할을 정했지요.

어떻게 후원하고 계신지요.

처음엔 선교사들이나 목회자들에게 무료로 진료, 건강 검진을 해드렸어요. 개원 당시엔 빛이 있었지만, 선교에 '십이조'를 고수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손님들이 느끼는 것을 경험했어요. 섬기면 부흥하는구나 싶었지요. 한번은 한 교회에서 편지를 받았는데, 성도는 800명씩 오는데 형편이 어려워 교회에 못 가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목돈을 헌금하기도 했어요.

CGNTV를 후원하게 되신 계기는.

선교사와 선교지요. 제가 CGNTV를 보면서 많은 힘을 얻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잘 때도 CGN을 틀어놓고 자요.



주로 시청하시는 프로그램은.

주로 예배와 말씀 프로그램을 보게 되요. 늘 갈급하지만, 모든 집회에 직접 참여하기는 어려우니까요.

CGNTV 시청소감은.

전 세계적으로 방송된다는 것 자체가 아름다워요. 그리고 말씀을 듣다보면 강요하지 않는 부드러움, 온유함을 느껴요. 그것이 굉장히 감동적이라고요. 기존의 많은 크리스천 방송들을 봤지만, 좀 더 마음을 읽어주고 위로해주고 치료해주는 것을 느낍니다.

헛될 테니까요. 그리고 CGNTV도 지금까지 놀라운 일을 했던 것처럼 어려운 일이 있어도 끝까지 잘 이기고 사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봉비 후원자는 시청소감으로 “CGNTV의 말씀에는 강요하지 않는 부드러움과 온유함이 있다”고 말했다. 성경에서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갈 6:7 하)”고 말씀하시는데, ‘열매가 결국 처음 뿌린 씨’에 있다면, 그녀는 CGNTV를 통해 자신이 직접 뿌린 씨의 소출을 누리고 있는 듯 보인다.

주님의 마음 따라

최연소 후원자 최지을 군(아빠 최영진, 엄마 강소영)가정

최연소 후원자는 이제 15개월 된 최지을 군이다. 지을 군이 후원자가 된 것은 CGNTV와 엄마 강소영 씨의 인연 때문이다.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집중한다는 그녀는 그 마음을 따라 전직과 별개인 의류사업을 시작했다. 또 새벽예배를 드린 후 마음에 감동이 있어 CGNTV 프로그램에 의상들을 협찬하기 시작했다. CGNTV와 그녀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돼 지금까지 크고 작은 일화들과 함께 이어지고 있다. 지을이를 CGNTV로 양육하고 싶다고 서슴없이 말하는 그녀. CGNTV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그녀가 운영하는 의상실 겸 커피숍 H.toah(겸손)에서 최연소 후원자 최지을 군과 가족들을 만났다.

오랫동안 여러 CGNTV 프로그램에 의상을 협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GNTV로 새벽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참 좋았어요. 어느 날 예



배 후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CGNTV에 연락을 하게 되었어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당시 2008년 즈음이었는데요, 전해진 씨가 진행하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담당 PD에게 제가 옷으로 섬겨드리고 싶다고 메일을 보냈지요. 그 때를 계기로 <박나림의 하늘빛 향기> <독수리5형제>에서도 협찬을 요청해 오셨어요. 한 번은 우연히 CGNTV 큰 현수막에 박나림 아나운서가 나왔는데, 저희 옷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목걸이도 지금 제가 한 것이어서 뿌듯했답니다.

CGNTV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느껴집니다.

저는 하나님께 ‘CGNTV 취직하고 싶어요’ 했어요. CGNTV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았으니까. 전 TV를 안 보는데, CGNTV는 늘 틀어놓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에게도 보여주지요. 아이에게 찬양과 말씀이 스며들 수 있게 해주고 싶어요. 전 20여 일 안에 급하게 결혼을 준비했는데, 그때 CGNTV의 <정주호의 몸뚱이>를 보며 매일 아침마다 20분씩 운동도 하고, 최신에 선생님께 요리도 배웠어요. 효과도 컸어요.

후원은 그런 애정에서 시작하게 되셨는지요.

영혼의 목마름이 채워졌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몫이라 생각했어요. 목을 축이는 생수도 돈을 지불하는데 하물며 영혼을 적시는 생명수를 위해선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지을 군이 CGNTV 최연소 후원자입니다.

아이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전해주고 싶었어요. 세상적인 것 보여주지 않고, CGNTV를 통해 양육하고 싶어요. CGNTV에도 아이들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어느 부분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CGNTV가 다양한 부분을 충분히 갖고 있다



고 생각해요.

남편도 국제대회에서 수상하신 상금을 전액 후원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참가하게 된 대회였는데, 상금을 반드시 후원해야 하는 대회였어요. 당시 상금이 2500달러였는데 CGNTV에 후원했지요. 그냥 상금이 주어졌다면 다른 일에 썼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여러 차례 후원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동생이 체코에 가 있었는데, 당시 체코가 영적으로 죽어있다고 하더라고요. 한인교회들도 이런 저런 말이 많고, 그것들이 안타까워 안테나를 보내고 싶었어요. 첫 손님에게 판매한 금액을 드려야겠다고 마음먹었지요. 37만원이었어요. 당시 후원 안내를 보니 금액이 모자라는 것 같더라고요. 더 보태 할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마음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후원팀에 연락했는데, 체코 금액을 알아보시더니 ‘37만원입니다’ 하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했지요. 그리고 일본 손님들을 보면서 일본에 대한 남다른 마음이 생겨서 H.toah 이름으로 일본에도 안테나를 후원했어요.

앞으로 가족의 비전이나 기도제목이 있으시다면.

예전에는 예수님을 조심스럽게 드러냈다면 이제는 대놓고 드러내기로 했어요. cafe H.toah에도 종일 찬양 음악을 틀기로 했어요. 믿음 없는 누군가가 왔을 때 성령의 터치를 느낄 수 있다면 좋겠어요. 또 옷을 제작하는 일도 조금은 더디 가더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영감으로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일본도 꾸준히 후원하고 싶습니다.



후원을 하신 후 마음이집이나 삶에 변화된 부분이 있는지요.

남편이 일만하고 즐길 줄 모르는 사람인데, 그러면 쉽게 지치고 일이 무의미해질 수 있잖아요. 열심히 일해 그 수익금을 드리니 보람과 기쁨을 느끼고 있어요. 가끔 제가 교회에서 교사로 섬기면 어떻겠냐고 물으면, 자기는 일주일 내내 사역을 한다고 해요 (웃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역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싶어요.

마지막으로 기도제목이 있으시다면.

부족하지만 저희 가족과 병원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시는 그릇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하는 모든 것도



선교지 대만에서 온 이야기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

대만에서 사역중인 금철 선교사가 CGNTV로 편지를 보내왔다. CGNTV가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며 방송하듯, 그 또한 CGNTV에 격려와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었다. 아내 백은영 선교사와 은찬, 하림, 한빛 세 자녀와 함께 사역 중인 금철 선교사. 그는 만만치 않은 영적 환경 속에서 교회 개척, 목회자 훈련, 화교권 선교네트워킹 사역에 매진하고 있다. CGN의 한국어, 중국어 큐티를 애청한다는 그의 이야기에, CGNTV는 그가 섬기는 대만 타이중 지역에 함께 터를 잡은 듯하다.



■ 금철 선교사의 가족, 아내 백은영 선교사와 자녀 은찬, 하림, 한빛



■ 단기 선교팀 방문, '한국인의 밤'



■ 세계성결연맹에서 대만 선교 관련 주제 발표



■ 인천 함께하는교회, 단기 선교 당시

금철 선교사 기도제목

1. 대만성결교회(87년 역사에 80여 교회 설립)가 건강한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2. 대만, 중국 그리고 화교권의 선교네트워킹을 통해 땅 끝 선교가 가속화 되도록
3. 대만성결교회와 협력해 개척 중인 언통교회가 모범적인 개척 사례가 되도록
4. 가족들이 건강하고 주님 사랑,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도록

대만의 만만치 않은 영적환경

“영적 공격과 놀림... 한국과 다른 현지 교회의 영적 미숙함”

대만은 국민 대부분이 이상승배에 깊이 물든 나라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기후가 온화하고 평온해보이지만 이방의 선교사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영적 환경입니다.

먼저 영적인 공격과 놀림이 많습니다. 한국에서와 달리 대만에서는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거나 가슴이 답답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현지교회들의 영적인 미숙함도 만만치 않은 숙제입니다. 현지교회의 영적인 미숙함 때문에 언어적·문화적 한계를 넘어 예배 가운데 영적 충만을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선교사들은 이러한 영적 상황에서 어찌 보면 개인의 영성관리가 사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은 영성회복을 위해 매일 씨름하고 있습니다. 전 가족이 TV 시청도 멀리하고 영성회복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CGNTV와의 만남

“중국어 방송을 통해 영적, 언어적 성장... 사역에 많은 도움”

그런데 지난 4월 화교권 선교전략 회의에 참석했다가 CGNTV를 알게 됐습니다.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설교가 저에게는 천상의 젖줄 같은 충만함을 주었고, 선교지에서 누리는 은혜의 호사였습니다. 또한 여타의 방송들은 유료 또는 일부 유료로 운영되는데 반해 모든 콘텐츠를 완전히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보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중국어 방송은 대만에서 사역하는 저에게 여러 가지 사역 자료가 되고, 현지 언어 발전에도 도움이 됐습니다. QT방송은 매일 한국어와 중국어로 번갈아가며 듣습니다. 본문이 동일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밖에 설교 방송과 교계 소식, 선교지 이야기도 영적 유익이 되고 있습니다. 샘을 계속 퍼주다 보면 언젠가는 마르는데, CGNTV를 보며 위성 전파를 타고 하늘의 은혜가 전해지고 세계가 하나로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선교지를 위한 선견지명

“CGNTV가 세계 선교네트워크에 구심점이 되어주길”

CGNTV가 처음 시작될 때는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말하면 “교회가 나서서 왜 저런 일에 낭비를 할까?” 생각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확실히 선견지명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아낌 없는 지원과 후원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와 사랑을 보냅니다. 선교지 주민을 살리고 선교사를 회복하는 귀한 사역에 주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빌겠습니다.

현재 선교에 점점 국경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CGNTV가 교단과 지역을 초월해 선교의 연합이 이루어지도록 구심점 역할을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처럼 상업적인 이윤을 추구하거나 개교회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섬기신다면 CGNTV는 더욱 귀하게 쓰임 받으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찾아가는 마음. “선교지 마다 ‘등근 안테나’가 떴습니다”

CGNTV 여름 아웃리치 풍경

CGNTV 직원들은 여름이면 국내외 선교지로 아웃리치를 떠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신 주님의 지령 때문일까? CGNTV전 직원들은 여름이면 으레 배낭을 꾸린다. CGNTV의 등근 안테나, 촬영 장비, 현지 교회에 필요할 것들을 싣고 또 한 곳의 ‘땅 끝’으로 향한다. 올해는 국내 세 곳, 해외 일곱 나라에 다녀왔다. 안테나를 선물 받고 CGNTV를 통해 말씀이 쏟아지기 시작한 곳들마다 웃음꽃이 피었다. CGNTV가 달고 온 것은 단지 안테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심령을 비추는 등불이 아니었을까? 그들이 다녀 온 아웃리치 풍경을 담았다.



■ 일본 오카야마교회 성도들과 함께



|01| 전남 조도 | 안테나를 조립하는 일은 늘 조마조마하다. 결국 완성된 안테나가 바닷가를 바라보며 지붕 위에 달렸다. ‘이곳에 주님의 빛 비추소서~’



|02| 무녀도 1팀 | 해지는 풍경이 아름다운 무녀도. 팀원들 모두 미장을 시작했다. 깨지고 부서진 것들을 메우며 하루가 저물어간다. 성도들 앞에서 워십도 선보였다.



|03| 무녀도 2팀 | 일 바지 차려입고 교회 가는 길을 모두 파랗게 칠했다. 먼 발치로 무녀도교회가 보인다. ‘하나님은 무녀도를 사랑하십니다~’





|04| 일본 오카야마 | CGNTV 안테나는 늘 하늘에 주파수를 맞춘다. CGNTV를 만난 교회와 선교사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오른다.



|05| 일본 오비히로 | 앓센부리교회, 메무로성결교회, 영광교회, 신토쿠교회... 복음에 척박한 땅 일본 교회들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안테나를 달아나갔다.



|06| 네팔 | 구슬땀이 송글송글, 네팔팀의 바빴던 7박 8일. 네팔 아이들이 세계를 품고 푸른 꿈을 꾸길 기도하며 학교 꾸미기를 위해 모두 페인트 붓을 들었다. 연신 즐거워하는 아이들. 네팔팀이 주최한 전도집회에서는 한 아름 선물을 안은 아이들이 함께 찬양하고 축복하며 기뻐했다.



|07| 인도네시아 | 2013년 CGNTV 선교헌신자들이 함께 훈련받은 전문인 선교학교 훈련자들과 인도네시아 선교지를 탐방했다. 그들은 현지 선교사들의 사역 현황을 살펴보고 각자 자신의 사역 비전을 그려보았다.



|08| 러시아 | 러시아 팀의 여정은 지도 위에 그려진 드넓은 러시아를 짚어보는 것으로 시작했다. 고국이 그리운 고려인교회 아가페교회 교우들은 CGNTV 안테나가 설치되고 화면이 켜지자 모두 환호하며 기뻐했다.



|09| 태국 | 현지에서 이영기 선교사를 만나 사역지 광콘마을을 돌아봤다. 해맑은 아이들과 한 때를 보내고, 현지 아카족 성도들에게 안테나를 달아주었다.



|10| 중동-아부다비, 요르단 | 아부다비 종교부지의 뜨거운 예배. 하지만 아직도 복음에 척박한 땅이다. 중동팀은 요르단 자타리 난민촌을 방문해 시리아 난민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도 하며, 아부다비와 요르단 땅 곳곳을 밟았다.



이훈 목사

탈북민들을 가족, 친구, 이웃처럼

“서로를 알아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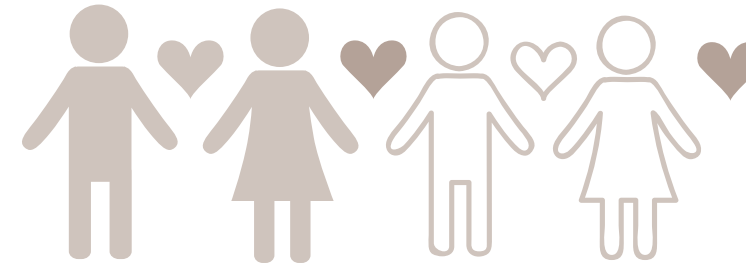


주선애 교수

CGNTV <반갑습니다>는 탈북민들을 초청해 다양한 북한의 실생활을 들어보는 프로그램이다. 진행자 주선애 교수와 이훈 목사, 그리고 올해 새롭게 진행을 맡은 윤영미 아나운서는 시청자들을 대신해 매주 그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그들이 있는 자리엔 웃음이, 때론 가깝지만 닿을 수 없고 넘을 수 없는 땅에 대한 안타까움이 묻어난다. 진행자이기에 앞서 이미 여타의 사역을 통해 탈북민들과 오랫동안 함께 해왔던 그들을 만나 사역 이야기, 프로그램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윤영미 아나운서



북한에도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있을까?
제3국을 통한 탈북은 어떻게 진행될까?
탈북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방송 진행은 처음이신지요.

이훈 목사(이하 이) >> <생명의 삶> 녹화는 해봤지만 이런 프로그램 진행은 처음이지요. 처음에는 낯설고 불편했는데, 지금은 한결 나아졌어요. 대본을 잘 만들어주시니, 흐름에 따라서 출연자들이 편하게 참여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교수님은 어떠세요.

주선애 교수(이하 주) >> 나는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 생각해요(웃음). 참 좋아요. 탈북자에게 관심이 많은데, 매회 새롭게 느껴지죠. 제가 1948년에 북에서 넘어왔는데, 다른 담당자들이 북한이 저의 고향이고, 또 여전히 마음에 품고 있으니 계속하라고 하시네요. 어느새 117회, 2년이 지났어요.

뒤늦게 가담하셨는데, 진행을 하게 되신 계기는.

윤영미 아나운서(이하 윤) >> 평소 CGN방송에 대한 생각이 있었어요. 크리스천이니까. SBS 있을 때도 '온누리TV'에서 책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고요. 그러다 PD가 남편과도 잘 알고 해서, 인연이 되었지요.

주 교수님, 이 목사님과 진행 호흡은 어떠신지요.

윤 >> 두 분은 오랫동안 탈북자 사역을 하셔서, 전문가 시각으로 진솔한 이야기를 주고받으시죠. 저는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시청자를 대변해 질문하는 역할을 하고, 제 입장에서는

편하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요. 앞으로 크리스천이 아닌 분들이 프로그램을 봐도 흥미롭고 재미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좀 더 편하게 진행하려고 해요.

일반방송을 진행하실 때와 다른 점이 있으시다면.

윤 >> 일반방송은 진행할 때 출연진의 말을 자르거나 유도할 때가 있어요. 한 사람의 말이 길어지면 재미가 없어지니까.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시청률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연자의 말을 충분히 들으면서 저도 느끼고 배우기도 해요.

목사님께서서는 현재 '한터' 사역으로 탈북민들과 만나고 계신데, '한터'는 어떤 곳인지요.

이 >> 한터는 인근에 거주하는 탈북가정 대상으로 청소년 교육에 중점을 둔 곳이에요. 탈북청소년들을 위한 방과 후 공부방, 그룹, 탈북여성들을 위한 공방 등이 진행되고 있지요. 함께 예배하고, 그룹에 있는 학생들은 숙식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원래 있던 양재동에서 탈북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강서로 옮겨 사역중이에요.

윤 아나운서 남편께서도 '한터'에서 사역 중인 목회자라고 들었습니다.

윤 >> 네, 2년 되었어요. 직장생활을 하다가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어요. 저는 남편이 사업가가 될 줄 알았는데, 시아버님



께서는 목회자가 되길 바라셨더라고요. 남편이 탈북자들을 섬기고 있어, 출연자들에 대해 이야기도 하고, 제가 도움을 받기도 해요.

이 목사님은 탈북자 종합회관에서 사역하셨던 주 교수님과 사역의 방향이 비슷합니다.

이 >> 제가 온누리교회에 와서 주 교수님이 하신 사역을 이어 받게 된 것이지요.

탈북자 종합회관은 어떤 곳인지요.

주 >> 2005년부터 5년간 봉사했어요. 하용조 목사님께서 탈북자 일을 해보라고 사무실을 만들어주셨지요. 하나원에서 나온 탈북자들과 나홀간 햇빛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숙식하면서 여행도 하며 여러가지 체험도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놀이동산도 가고, 꽃시장도 가고, 게임도 하고, 장기 자랑도 하면서.

기독교 공동체를 보여주기 위해 ‘밥피’에도 가고, 생명의 존엄성을 보여주고 싶어 ‘천사병원’이나 ‘양로원’, ‘홀트’에도 갔어요. 그런 경험은 탈북자들에게 효과가 컸어요. 그곳에서 섬기는 분들이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니까. 우리 사회가 이렇게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한 번은 동부 노인전문병원에 안식관이라고 있는데 그곳에 계신 어른들이 기도해주고 반겨주니까 ‘엄마 만난 것 같다’고 울면서 그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탈북민들은 아이들을 키울 때 무섭게 다뤄요. 엄마들이 그러면 안된다는 것을 들어보지 않았지요. 그래서 교통비 5만 원씩 주면서 오라고 해서 자녀 양육하는 것도 가르쳐 주기도 했어요. 자원봉사자들이 자녀들에게 영어도 가르쳐주었는데, 그 때 배운 이유나라는 학생은 지금 한동대학교 로스쿨에 재학생이에요.

가족과 떨어져 사는 아픔이 있는 탈북민들도 많을 텐데요. 실제 어떤지요.

주 >> 대부분 사람들은 놀이공원에서 무서운 것을 타면 소리를 지르는데, 그들은 악 소리를 못해요. 마음이 불안하고 상처가 있어서. 가족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먹을 때나 추울 때나 언제든지 떨어져 있는 가족들 생각이죠. 웃고는 있지만, 울음이 있어요.

탈북자들이 겪는 혼란과 곤란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주 >> 체제가 완전히 다르니까 그 자체가 혼란이지요. 생활수준이 옛날 우리 1950년대 같으니까요. 대통령을 비판하는 걸 보면서 상당히 놀라요.

이 >> 정치학을 공부하는 한 청년은 한국에서 제일 혼란스러웠던 것이 다양성이라고 하더라고요. 북한은 획일적이고 답

이 하나 밖에 없는데,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북에서는 OX나 사지선다 형태도 없고 답은 무조건 하나랍니다.

주 >> 감자를 큰 것과 작은 것을 골라라 하면 못 골라요. 기준이 없어서.

이 >> 그리고 언어를 힘들어 하지요. 워낙 외래어도 많고, 여성 화장품을 봐도 다 영어나니까.

주 >> 어떤 이는 우스갯말로 북한에서는 배고파 죽겠다. 중국에서는 무서워 죽겠다. 북송되니까. 남한에 오면 몰라서 죽겠다고 해요(웃음).

윤 아나운서께서도 직접 탈북민들을 대면하면서 새롭게 느끼는 점이 있으신가요.

윤 >> 탈북민 분들이 말을 참 잘하세요. 또 출연진들마다 간혹 이야기에 차이가 있을 때가 있는데, 북한 사회자체가 폐쇄된 곳이거나 싫어해요. 반면 북한은 감시도 있고 한다면 타인과의 관계도 폐쇄적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친구, 친척과 왕래도 잦고 스타일은 다르지만 나름의 노는 문화가 있더라고요. 사람 사는 모습 다 똑같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출연자들 중 인상적이었던 분이 있으시다면.

윤 >> 북한 1호 배우 주순영 선교사가 기억에 남아요. 북한에서 김일성 부인 김정숙 역할을 했던 분인데, 그분 삶 자체가 드라마틱했고, 그분이 김일성, 김정일을 옆에서 직접 본 분이라

서 더 생생한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일반인은 모르는 최상위 계층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분이 북한에서 MC도 하고 아나운서도 했더라고요. 북한의 공연, 엔터테인먼트에 관한 이야기도 흥미로웠지요.

이 >> 이 프로그램이 탈북민들과 그들을 위한 사역을 하는 한국 분들이 출연하는데, 탈북의 과정을 듣다보면 아픔과 상처가 깊이 공감돼요. 사역자 분들을 보면 참 많은 분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사역중이거나 싶어요.

탈북민을 위한 기도제목이나 배려할 점이 있다면.

이 >> 한국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탈북 지체들을 따뜻하게 가족, 이웃, 친구로 품어주는 마음이 많으면 좋겠어요. 또 이 프로그램을 통해 꼭 선교의 마음이 아니더라도 탈북 지체들이 어떤 고민이 있는지 모두가 알고 서로 소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윤 >> 방송을 보시고 후원을 하고 싶은 분들은 프로그램으로 연락을 주시면 도울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 >> 탈북민들을 알아야 사랑할 수 있죠. 그들이 어떤 마음일까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해요. 사람의 마음은 낙심할 수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포용해야 해요. 그들에게는 기독교인의 사랑이 절대 필요합니다.

Fashion에서 Passion으로 그녀만의 인생 런웨이

박돌선은 자신만의 고유한 멋을 아는 모델이다. 이번 '토크인토크'는 토크콘서트 <힐링유>를 찾은 그녀의 이야기를 담았다. 진솔하게 자신의 신앙 성장 과정을 털어놓은 그녀의 무대는 'Fashion(유행 스타일)'이 아닌 'Passion(열정)'을 보여준 자리였다. 몇 분 안에 자신을 어필해야 하는 런웨이, 한 장의 사진으로 시선을 끌어야 하는 그녀는 누구보다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데 익숙하다. 그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를 맞았다. 거듭난 사실에 대한 고백, 은혜 입은 자의 꿈. 그녀의 고백은 무대 위 화려한 모습보다 그녀를 더 빛나게 하는 지점이었다.



모델 박돌선은 어땠나요.

슈퍼엘리트모델대회에 경남 대표로 출전한 후 치열한 경쟁 끝에 우승을 하게 되었어요. 당시 무리하게 살을 빼려다 영양실조도 걸렸지요. 연습도 다른 이들이 10시간 할 때 전 14시간 했어요. 1등을 한 후엔 세계적인 톱모델을 꿈꿨어요. 신혼여행을 미룰 정도로 일에만 매진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니 제가 노력해서 이룬 것만큼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진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신앙 이야기를 나눠주신다면.

전 모태신앙인이예요. 어릴 때부터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자랐지요. 주일성수, 십일조에 성실했고, 주변 친구들에 비해 나름대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거듭남의 의미는 무엇인지' 궁금해졌어요. 그러던 중 연예인들과 함께 한 수련회에서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것에 관해 듣게 되었어요. 제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앞에서 죽었다면 지금 저는 없는 거잖아요. 주님을 믿을 때, 인생의 근원 자체가 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지금도 저는 죄의 속성 가운데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 받고 싶어 하지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좋은 모습도 있어요. 제가 숨을 쉬는 동안 이 두 마음은 계속 싸우겠지만 제가 주님 앞에 선다면 승리할 것이라 믿습니다.

수많은 런웨이를 걸었는데, 어떤 마음이신지요.

수없이 런웨이를 걸었지만 무대는 매번 떨려요. 나갈 때마다 '주님 저 나갑니다. 같이 나가셔야 됩니까'라고 기도하지요. 혼자까 아니라서 힘이 되요. 삶의 런웨이에서도 그분과 함께 합니다. 요즘 2013년 슈퍼모델을 선발하는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제가 후배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찾는 것이 가장 큰 경쟁력이라는 점이에요. 가장 한국적인 것이 한국의 경쟁력이라는 말처럼 '자기 자신이 곧 경쟁력'이죠. 저는 예수님과 함께 하니 저의 경쟁력은 그 점에서 찾을 수 있겠지요. .

“살다가 보면 울 일, 포기하고 싶은 일도 많고 외로울 때도 많습니다
아픈 흔적은 사람들 사이에서 사랑하면 사라집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 힐링레터 한 통.

살다가 보면 울 일, 포기하고 싶은 일도 많고 외로울 때도 많습니다. 세월이 흘러 뒤돌아보면 그냥 지나가는 흔적일 뿐인데 가끔 그 흔적들이 아물지 않아서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삶을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는 하늘은,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계십니다. 아픈 흔적은 사람들 사이에서 사랑하면 사라집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故 하용조 목사 2주기 추모 다큐 제작후기

여전한 그의 울림, '더 메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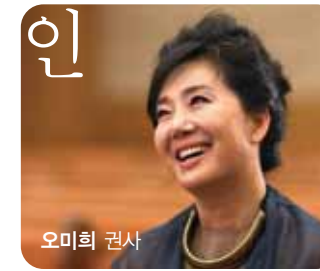
<더 메시지>의 시작

고(故) 하용조 목사의 2주기 추모 다큐멘터리 제작을 맡았다. 하용조 목사는 은누리교회 담임목사로 일평생 설교를 위해 헌신했으며, CGNTV를 설립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다큐 제작을 맡았다. 감사한 일이었지만, 한편으론 부담감이 컸다. 오랜 생각 끝에 이번에는 하용조 목사의 설교, 그의 메시지를 테마로 잡았다. 지난해 그의 말씀을 더 담지 못해 아쉬웠던 생각이 떠올랐다. 그가 남기고자 했던 말씀,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그의 메시지를 따라가 보기로 했다. <더 메시지(The Message)>는 그렇게 시작됐다.



제작 착수

하지만 막상 시작하려니 어려움이 많았다. 하용조 목사의 설교 대부분이 강해설교였고 설교의 양도 방대했다. 그것들을 한 번씩 들어보는 것도 버거운 작업이었다. 한 편의 설교를 보는 듯 만들고 싶었지만 수정이 불가피했다. 결국 주변의 목사, 신학자, 성도들을 만나 조언을 듣고, 그분이 어떤 설교자였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그렇게 해서 <더 메시지>는 '가슴으로 말하는 설교자(따뜻하고 친근했던 설교자)', '오직 성경만 말하는 설교자(강해설교자)', '삶의 방향을 바꾸는 설교자(단호하게 삶의 지침을 제시)', '환자복 입은 설교자(육체를 질병을 이겨낸 설교자)'로 구분해 그의 이야기를 담았다.



오미희 권사



윤형주 장로



장광 장로



제작과정

인터뷰는 최소화하고, 그의 말씀을 최대한 많이 담으려고 했다. 그래서 그의 설교를 듣는 일이 촬영 일정보다 더 많았다. 1980년대 설교 mp3파일을 듣고, 90년대 설교 영상을 보고, 강해설교집을 읽기 시작했고 각 주제에 맞는 설교를 찾기 시작했다. 실로 방대한 작업이었다. 수많은 설교를 녹취했고, 검색했고, 듣기를 반복하며 그렇게 하나하나 맞춰갔다. 그러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정한 주제에 맞는 말씀을 찾고 적당한 컷을 붙여놓으면 다음날 더 적합한 그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수정 작업은 방송 직전까지 수없이 반복됐다. 촬영도 만만치 않았다. 타임랩스라는 촬영기법을 주로 사용했는데 한 컷 한 컷 찍을 때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촬영감독들은 두 달간 주말을 반납했다. 장마기간까지 겹쳐 더 녹취치 않았지만 방송 직전까지 모두 최선을 다했다.



새로운 시도

참신한 느낌을 주기 위해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았다. 하용조 목사의 설교를 들은 성도들에게 API(Appearance, Personality, Inclination)설문을 실시하고, 스피치 전문가 집단의 조언을 들은 결과 그가 탁월한 커뮤니케이터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만큼 그의 설교가 그림설교, 즉 성도들에게 다가가기 쉬웠다는 점에 착안해 그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샌드 애니메이션을 제작했다. 창세기 강해설교 중 한 본문을 찾았고 내용에 맞게 콘티를 짜서 샌드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했다. 그렇게 제작된 샌드 애니메이션은 이삭을 바쳤던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표현했다. 이것은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감동으로 다가갔다.



마무리하며

"강단에서 쓰러져 죽을지언정 나는 설교를 하겠다", "나는 설교하다 죽었으면 좋겠다." 하용조 목사는 평소 자신이 하던 말대로 살다가 하나님 곁으로 갔다. 몸이 아파도 강대상에만 오르면 힘이 난다고 했던 그. 다큐멘터리를 통해 만났던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그의 메시지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그 메시지로 살아가려 애쓰고 있었다. 이제 하용조 목사는 우리 곁에 없지만, 그의 메시지는 여전히 사람들 곁에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더 메시지>가 끝났지만, 그의 메시지는 아직도 우리의 귀와 맘에 맴돈다. "초심을 잃지 말라", "안주하지 말라", "서로 사랑하라", "희생하라", "떠나라"

'주식과 부동산' 어떻게 할까? 성경적 재테크

재테크는 현대인들에게 많은 이목을 끄는 분야이다. '재무 테크놀로지'의 약자인 이 말은 고도의 테크닉으로 금융거래에 이익을 꾀하는 일을 말한다. 특히 주식과 부동산은 대표적인 재테크 방법으로 꼽힌다. 많은 이들은 이에 대해 '합법적이니 괜찮다' 혹은 '어딘지 찝찝하다'는 등 엇갈린 생각들을 내놓는다. 과연 이 '고도의 테크닉'이 크리스천들에게도 적합한 것일까? CGNTV는 '토지+자유연구소' 남기업 소장을 초청해 '성경적 재테크', 특히 주식과 부동산 재테크에 대한 성경적 해법을 들어보았다.



나의 재테크! 노력소득일까? 불로소득일까?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는 재테크 문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일까요? 이 시간 저는 특별히 부동산과 주식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성경에서 노력해서 얻는 소득, 즉 '노력소득'을 존중한다는 점입니다. 십계명 중 8계명을 보면 '도적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미 내 것과 네 것을 구분하는 전제가 깔려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낸 산물, 소득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주식과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은 노력소득일까요? 노력소득은 열심히 노력했을 때 사회적인 부, 즉 경제적인 용어로 'GDP(국내총생산)'가 증가하고,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반대 의미인 불로소득은 개인에게는 소득이 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이득이 없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것, 매매차익을 가지고 돈을 벌겠다고 하는 건 무엇에 해당할까요? 이것은 불로소득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라 전체의 부가 증가하거나 고용이 창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식이 경제에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보다 주식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훨씬 용이하고, 이것이 경제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식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비록 주식이 불로소득이지만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또 개인의 영적인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기술이나 경영능력이 있는 회사의 주식을 사서, 그것에 얽매이지 않으며 정기적으로 배당금을 받고 적절한 시기에 파는 것이죠. 하지만 투기적인 거래, 오늘 산 걸 내일 팔기 위해 계속해서 컴퓨터 화면만 바라보고, 주식의 가격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것은 영적 건강에 좋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식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비록 주식이 불로소득이지만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또 개인의 영적인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른 재테크!

다음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은 어떤 소득일까요. 위와 같은 검증과정을 거쳐보면 이 또한 불로소득입니다.

부동산 매매는 합법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발생하는 희생자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사야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 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때문에 우리 사회 양극화가 심해지기도 하고 금융기관 마비나 사회갈등도 야기됩니다. 또한 많은 이들이 인생의 노른자 위인 3,40대에 집을 사는데 시간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해선 국가가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해 바람직한 조세제도를 정비해 이를 환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좋지 않은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 인생에서 과정을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땅에 정의로운 제도가 세워지길 기도해야 합니다.

필요한 집이나 부동산은 구입해야 하겠지만 적극적인 투기는 지양해야 합니다. 주택 과소비도 멀리해야 합니다. 소득에 비해 너무 비싼 집을 많은 대출을 받아 구입하는 것 또한 투기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노력소득을 존중하십니다.

우리는 불로소득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늘 꼭 필요한 만큼만 취하고, 우발적인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사회에 환원하며, 문제를 성경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남기업 소장
토지+자유연구소, 웨스터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CGN 성경연구 프로그램 말씀으로 풍성한 가을

영혼이 살찌는 가을. 올 가을, 성경과의 깊은 만남을 선물하는 알찬 강좌 프로그램들을 소개한다.
전문 강사진들의 강의를 통해 말씀으로 한걸음 다가가는 시간을 경험한다.



구약 성경이 역사 드라마로... 성경과 역사가 한 자리에

류모세 선교사의
〈하루에 완주하는 성경 역사 산책〉

이스라엘에서 사역한 류모세 선교사와 함께하는 생생한 성경속 역사탐방 시간. 구약성경을 역사 드라마로 재연한 내용을 토대로 역사, 지리, 성경을 한 번에 만나볼 수 있다. 류 선교사는 이스라엘 현장체험 성경일독학교를 수료한 성도들이 이 강의 자료로 책을 썼으면 좋겠다는 제안에 따라 책 출간과 강의를 동시에 진행하게 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성경 역사와 세계사를 동시에 배울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성경이 열리고, 말씀이 보이고

〈열린다 성경: 생활풍습이야기〉
(강사 류모세-선교사, 도서〈열린다 성경〉 시리즈 저자)

〈열린다 성경〉은 성서 시대 유대인들의 문화를 알아야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CGNTV는 저자 류모세 선교사를 초청해 성경속 생활과 풍습을 알아보고 성경의 사건과 그 속에 담긴 의미를 풀어본다.



영적 리더들이 밝히는 세상

〈햇볕회 강좌〉



영적 리더들을 지속적으로 교육해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강좌. 이 시대를 책임질 영적 리더들을 세우는 사역에 뜻을 두고 있는 햇볕회는 매년 봄과 가을 목회자와 사모들, 그리고 각계의 영적 리더들을 위해 정기적인 강의와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 위 프로그램들은 CGNTV홈페이지(www.cgntv.net)를 통해 전 강의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CGNTV 시청방법

CGNTV와 만나는 다양한 방법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까이
24시간 당신을 위한 감동과 함께 하십시오.

위성TV
위성안테나 설치로 국내외 170여 국에서 24시간 은혜와 감동을 누릴 수 있습니다.

- ▶ 국내 설치비용 : 31만원 (월 수신료 없음)
- ▶ 해외 설치비용 : 평균 \$300~500 (예) 인도네시아 16만원 / 남아공, 몽골 80만원

※ 복음에 소외된 선교지에 직접 안테나를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573-910007-69605
(예금주: 재단법인 온누리선교재단)

케이블TV
디지털 케이블방송을 통해 가정에서 손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지역, 기후 조건에 관계없이 어디서나 선명한 화질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 ▶ CJ헬로비전 ch.702번 (헬로TV 프리미엄 상품)
- ▶ COMS ch.703번 (고급형, HD프리미엄형 상품)
- ▶ NIB남인천방송 ch.702번 (D-Lux 상품)
- ▶ CS 푸른방송 ch.702번 (프리미엄형 상품)

IPTV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로 다양한 콘텐츠를 원하는 시간에 고화질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 ▶ illeh ch.237번 (가입문의: 국번없이 100번)
- ▶ SK Btv ch.554번 (가입문의: 02-6269-7979)
- ▶ LG U+ ch.183번 (가입문의: 국번없이 101번)

※ LG U+ TV : 스마트 HD 상품, 프리미엄 상품 가입 시 시청 가능

스마트폰
모바일웹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손쉽게 은혜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 ▶ 모바일웹을 이용한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스마트폰 인터넷 창에 m.cgntv.net 입력)
- ▶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Live 방송 서비스 (CGNTV LIVE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 ▶ 팟캐스트를 통한 동영상 다운로드 서비스 (아이폰/아이패드 이용시, iTunes 앱 실행 → CGNTV 검색)

인터넷 www.cgntv.net
인터넷 CGNTV홈페이지에서는 고화질 Live 방송을 시청할 수 있고 VOD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기타시청문의] 02-796-9800

CGNTV 해외지사 소식

글로벌 네트워크의 거점

CGNTV 5개 해외지사, 제작센터(미주, 일본, 중문, 태국, 아랍)들이 현지 선교를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각 센터들은 영적 콘텐츠를 자체 제작·보급하고, 각 지역교회들과 협력하며 현지 선교 사역에 주춧돌이 되고 있다. 특히 각 센터마다 현지 실정에 맞는 맞춤형 사역에 힘쓰고 있다. 각 센터에서 보내 온 국가별 선교소식을 전한다.

미주 CGNTV

개국 8주년 기념 특별 대담 제작

〈미주 목회자를 만나다〉 시리즈 방송

미주CGNTV는 지난 8월 개국 8주년을 맞아 특별 기념 대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미주 목회자를 만나다〉라는 타이틀로 기획된 이번 방송은 CGNTV 유재진 대표이사가 직접 미국을 방문, 현지 주요 목회자들과 만나 이루어졌다. 핵심 주제는 '미디어'. 손인식(베델한인교회), 김영길(감사한인교회), 진유철(나성순복음교회), 이종용(코너스톤교회), 박성근(로스엔젤레스 한인침례교회) 목사를 중심으로 8월 한 달간 매주 다른 주제의 대담을 선보였다. 상기 목회자들을 순서로 1편 '미디어와 기독교 문화', 2편 '미디어와 선교', 3편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4편 '소셜미디어 시대', 5편 '미디어 선교의 미래와 방향' 등으로 진행됐다.



일본 CGNTV

개국 7주년, 차세대 컨퍼런스 〈His Generation〉 개최

프랜시스 채, 데이비드 플랫 등 주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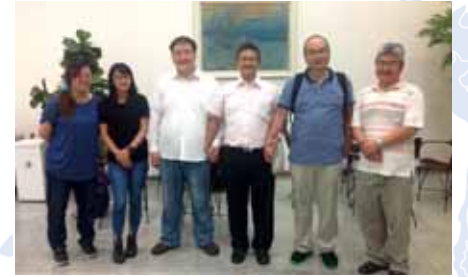
일본CGNTV는 개국 7년을 맞아 오는 10월 3, 4일 양일간 차세대 컨퍼런스 〈His Generation〉을 개최한다. 일본CGNTV가 일본교회와 협력해 진행하는 〈His Generation〉은 미국 교계의 차세대 리더 프랜시스 채(전 코너스톤교회)목사와 데이비드 플랫(브룩힐즈교회) 목사, 이재훈 온누리교회 목사가 주강사로 나선다. 일본CGNTV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일본교회에 새 희망을 불어 넣고, 목회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여러가지 사역 모델을 소개하는 등 일본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일본CGNTV는 지난 6월 지진피해지역인 후쿠시마 지역을 방문해 '후쿠시마 가족콘서트'를 개최하며 피난민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문 CGNTV 타이페이 제작센터

열정으로 심어가는 선교역사 현장의 기록

중문CGNTV 타이페이 제작센터에서는 최근 〈내 인생을 바꾼 한 말씀〉 촬영을 위해 크리스천 기업인 송즈파(Taiwan Imaging Tek Corporation)사장을 만났다. 그가 나눈 말씀은 로마서 10장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이튿날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어디든 자신이 밟는 땅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크리스천의 사명이라 여기는 그는 촬영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보여주었다. 한편 올해 중문CGNTV의 대만 아웃리치는 대만의 선교역사 현장을 기록하는 사역으로 이뤄졌다.



태국 CGNTV 방콕 제작센터

말씀 전파 사역, 큐티 및 세미나 DVD 제작·보급

태국CGNTV 방콕 제작센터는 말씀전파 사역에 매진하고 있다. 태국은 TV나 인터넷, 스마트폰 등 미디어가 한국처럼 발달되어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빈약하다. 이에 태국CGNTV는 〈태국어 Living Life 누가복음 편〉을 DVD로 제작해 태국인들, 특히 시골교회나 무목교회 등에 보급하고 체계적으로 성경을 공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밖에 방콕, 치앙마이 등 대도시에서 열리는 좋은 세미나들도 직접 촬영해, DVD로 제작, 보급하고 있다.



아랍 CGNTV 아부다비 제작센터

찬양성령집회를 통한 은혜의 시간

아랍CGNTV는 아부다비 제작센터를 중심으로 무슬림의 변화, 현지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한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라마단 관련 제작물을 만들면서 현지 무슬림 가족의 초청을 받게 됐고, 무슬림을 향한 기도를 공고히 하게 됐다. 또한 지난 8월 6일엔 3월에 이어 아랍CGNTV 두 번째 찬양성령 집회를 가졌다. 이번 집회는 평상시 찬양과 기도예 목말랐던 현지 성도들에게 마음껏 외칠 수 있는 장이었다. 아랍CGNTV는 현지 사역의 중보자와 후원자를 발굴하고, 앞으로 한인교회와 외국교회의 소통의 장으로 발전하기를 기도하고 있다.



CGNTV 국내소식

2013 CGNTV 아나운서 공채, 200대 1의 경쟁률

CGNTV 아나운서 공개채용이 20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 7월 11일 서류 접수를 받으며 시작된 이번 공개채용은 'CGN투데이' 등 CGNTV 보도프로그램의 얼굴이 될 아나운서를 뽑는 것. 1명을 뽑는 자리에 총 200명의 지원자가 몰려 눈길을 끌었다. 서류심사, 카메라 테스트, 면접 등을 거쳐 합격자가 최종 확정됐다. 합격자는 오는 CGNTV 가을개편과 함께 'CGN투데이' 진행자로 시청자들을 만나게 된다.



고(故) 하용조 목사 콘텐츠 유튜브 채널 오픈

CGNTV는 고(故) 하용조 목사 2주기를 맞아 지난 8월 그의 다양한 콘텐츠를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hayongjo)에 오픈했다. CGNTV를 통해 방송됐던 그의 다양한 설교 및 강의, 다큐 등을 좀 더 쉽고 간편하게 접할 수 있게 된 것. CGNTV는 이와 함께 기존 팟캐스트에 제공됐던 콘텐츠도 강화해 하용조 목사를 그리는 시청자들을 위한 창구를 넓혔다. 유튜브 홈페이지, 유튜브, 팟캐스트 APP에서 'CGNTV하용조'를 검색하면 쉽게 시청할 수 있다.



2013년 제16회 실행위원회 개최

CGNTV 실행위원회(위원장 김종건 장로)가 지난 8월 22일 16회 모임을 가졌다. 이번 모임에서는 올해 7월까지의 재정 및 후원현황 등이 보고됐고, 하반기에 진행될 CGNTV 후원행사 및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등이 논의됐다. 한편 CGNTV는 올 하반기 정기후원행사(10월 6일)와 고액후원행사(11월 26일), 군마리브스나타(11월 13일~14일), 가을개편(10월 7일) 등을 준비하고 있다.



CGNTV, '열린다 성경 아카데미' · 하나투어와 업무협약

CGNTV는 '열린다 성경 아카데미'(대표 류모세), 하나투어(대표 최현석)와 지난 7월 16일 당사에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삼사는 각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자리를 갖고,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돕는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 국내외로 보급하는데 뜻을 같이했다. CGNTV는 차후 '열린다 성경 아카데미'의 콘텐츠를 제작 · 보급하고, 하나투어는 '열린다 성경 아카데미'의 현장 세미나 투어를 담당할 예정이다.



2013년 장로사관학교 CGNTV 방문

2013년 온누리교회 장로사관학교가 사역현장 탐방의 일환으로 지난 7월 4일부터 8월 21일까지 총 7회에 걸쳐 CGNTV를 방문했다. 장로사관학교는 온누리교회의 신임, 피택장로들의 장로훈련학교. 참가자들은 부부동반으로 2개 조가 한 팀이 돼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서 각 팀들은 CGNTV 유재건 대표이사의 회사 소개를 듣고, 평소 CGNTV에 궁금한 점 등을 나누면서 방송선교사역현장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CGNTV, <울어라 한반도여> <CBMC 한국대회> 현장 중계

CGNTV는 대형집회 <울어라 한반도여>와 <CBMC 한국대회> 현장을 생중계했다. <울어라 한반도여>는 지난 7월 4일 임진각 평화누리 야외 공연장에서 열린 대규모 기도집회로, 수만 명의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선교와 한반도 통일을 염원했다. <CBMC 한국대회>는 올해로 40차를 맞는 대회로 기독교실업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믿음으로 도약하자'는 주제 아래 소명과 사명을 다지는 자리였다. 지난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여수엑스포 해양공원에서 약 4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각 집회는 CGNTV홈페이지(www.cgntv.net)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TV

편성
프로그램

CGNTV Program

sun

일
 04:50 일본 야마토 갈보리 채플예배
 05:50 하용조 목사의 40일의 감동(영어)
 06:30 생명의 삶
 06:50 주일예배(1부)(LIVE)
 08:30 [드라마] 팬인가 제자인가
 09:00 주일예배(2부)(LIVE)
 10:40 토크콘서트 힐링유
 11:20 새벽나라
 11:30 주일예배(3부)(LIVE)
 13:10 미니콘서트 심
 13:20 어린이예배
 13:50 주일예배(4부)(LIVE)
 15:50 내 인생을 바꾼 한 말씀
 16:00 ENGLISH WORSHIP SERVICE
 17:00 힐송 컨퍼런스
 17:30 파워타임 - 이찬수 목사
 18:10 유재건의 크리스천 CEO를 만나다
 19:00 열린새신자예배(LIVE)
 20:30 CGNTV 맞춤형강 <나침반>
 21:30 파워타임 - 유기성 목사
 22:10 주일예배
 23:50 CGNTV 맞춤형강 <나침반>
 00:30 파워타임 - 박은조 목사
 01:10 존 파이퍼의 더 바이블
 01:40 2013 목회사관학교
 02:30 요셉솔람 목사 초청세미나
 03:20 크레이그 그로웰의 거듭남
 03:50 비전타임 - 지형은 목사

mon

월
 05:00 새벽기도회(LIVE)
 05:40 CGN 투데이
 06:00 생명의 삶
 06:20 파워타임 - 이재철 목사
 07:00 파워타임 - 서정오 목사
 07:40 자기 이해를 위한 상담기초이론(영어)
 08:20 주영훈의 편안한 북카페
 09:00 파워타임 - 강준민 목사
 09:40 토크콘서트 힐링유
 10:20 파워타임 - 박은조 목사
 11:00 CGNTV 맞춤형강 <나침반>
 11:40 내 인생을 바꾼 한 말씀
 12:00 하용조 목사의 마가복음 강해(영어)
 13:00 강석우, 윤희선의 하늘빛향기
 14:00 비전타임 - 김형준 목사
 14:40 비전타임 - 양춘길 목사
 15:20 CGN WORLD REPORT
 15:40 비전타임 - 박성민 목사
 16:20 맥스 루케이도의 10분의 혁명
 16:50 새벽나라
 17:00 나는야 주의 어린이
 17:30 햇불회 강좌
 19:00 비전타임 - 이규현 목사
 19:40 토크콘서트 힐링유
 20:20 파워타임 - 유진소 목사
 21:00 CGNTV 맞춤형강 <나침반>
 21:50 유재건의 크리스천 CEO를 만나다
 22:50 새벽기도회
 23:30 전센 프랭클린의 부흥
 00:00 SALT & LIGHT
 01:40 파워타임 - 김지철 목사
 03:10 충성! 은혜로軍
 03:50 비전타임 - 장덕순 목사

tue

화
 05:00 새벽기도회(LIVE)
 05:40 CGN 투데이
 06:00 생명의 삶
 06:20 비전타임 - 이재훈 목사
 07:00 파워타임 - 권성수 목사
 07:40 이기복 교수의 결혼코칭(인도네시아어)
 08:20 독수리 5형제
 09:00 파워타임 - 라준석 목사
 09:40 반갑습네다
 10:20 파워타임 - 유기성 목사
 11:00 CGNTV 맞춤형강 <나침반>
 11:40 바이블 Q & A
 12:00 파워타임 - 홍정길 목사(영어)
 13:00 충성! 은혜로軍
 14:00 비전타임 - 정근두 목사
 14:40 비전타임 - 박성근 목사
 15:20 미니콘서트 심
 15:40 비전타임 - 김병삼 목사
 16:20 존 파이퍼의 더 바이블
 16:50 새벽나라
 17:00 예수님이 좋아요
 17:30 2013 예배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
 19:00 비전타임 - 진재혁 목사
 19:40 반갑습네다
 20:20 하용조 목사의 마가복음 강해(영어)
 21:00 CGNTV 맞춤형강<나침반>
 21:50 화요성령집회 Holy Impact
 22:50 새벽기도회
 23:30 크레이그 그로웰의 거듭남
 00:00 브라보! 마이 라이프
 01:40 조셉 프린스의 은혜
 03:10 SALT & LIGHT
 03:50 파워타임 - 홍성욱 목사

wed

수
 05:00 새벽기도회(LIVE)
 05:40 CGN 투데이
 06:00 생명의 삶
 06:20 파워타임 - 유기성 목사
 07:00 파워타임 - 이영훈 목사(영어)
 07:40 두란노 기독교상담학과 감정시리즈(러시아어)
 08:20 최신애의 행복한 식탁
 09:00 파워타임 - 유진소 목사
 09:40 강석우, 윤희선의 하늘빛향기
 10:30 수요여성예배(LIVE)
 12:00 파워타임 - 김지철 목사
 13:00 유재건의 크리스천 CEO를 만나다
 14:00 비전타임 - 지형은 목사
 14:40 비전타임 - 권준 목사
 15:20 내 인생을 바꾼 한 말씀
 15:40 파워타임 - 서정오 목사
 16:20 힐송 컨퍼런스
 16:50 새벽나라
 17:00 나는야 주의 어린이
 17:30 요셉솔람 목사 초청세미나
 19:00 비전타임 - 이재훈 목사
 19:40 강석우, 윤희선의 하늘빛향기
 20:20 파워타임 - 강준민 목사
 21:50 손기철 장로의 말씀치유집회
 22:50 새벽기도회
 23:30 론 솔로몬의 창세기 강해
 00:00 토크콘서트 힐링유
 00:40 햇불회 강좌
 01:40 하용조 목사의 40일의 감동(영어)
 03:10 반갑습네다
 03:50 비전타임 - 김병삼 목사

thu

목
 05:00 새벽기도회(LIVE)
 05:40 CGN 투데이
 06:00 생명의 삶
 06:20 하용조 목사의 마가복음 강해(영어)
 07:00 파워타임 - 김창근 목사
 07:40 청년제자학교(스페인어)
 08:20 브라보! 마이 라이프
 09:00 비전타임 - 권혁빈 목사
 09:40 SALT & LIGHT
 10:20 파워타임 - 이찬수 목사
 11:00 2013 마리아행진
 12:00 파워타임 - 이동원 목사(영어)
 13:00 반갑습네다
 14:00 비전타임 - 장덕순 목사
 14:40 비전타임 - 정인수 목사
 15:20 바이블 Q & A
 15:40 비전타임 - 정근두 목사
 16:20 우리가 몰랐던 무슬림
 16:50 새벽나라
 17:00 예수님이 좋아요
 17:30 회복사역 특별한 세미나
 19:00 비전타임 - 김승욱 목사
 19:40 SALT & LIGHT
 20:20 파워타임 - 이기훈 목사
 21:00 CGNTV 맞춤형강 <나침반>
 21:50 열린새신자예배 <특별한초대>
 22:50 새벽기도회
 23:30 톨리안 차비진의 산상수훈
 00:00 강석우, 윤희선의 하늘빛향기
 00:40 김용의 선교사의 다시 복음앞에
 01:40 파워타임 - 홍정길 목사(영어)
 03:10 토크콘서트 힐링유
 03:50 파워타임 - 권성수 목사

fri

금
 05:00 새벽기도회(LIVE)
 05:40 CGN 투데이
 06:00 생명의 삶
 06:20 파워타임 - 박은조 목사
 07:00 파워타임 - 홍성욱 목사
 07:40 성경대학(인도네시아어)
 08:20 유재건의 크리스천 CEO를 만나다
 09:00 파워타임 - 이기훈 목사
 09:40 충성! 은혜로軍
 10:20 이재훈 목사의 비전메시지
 11:00 CGN 비전특강
 12:00 하용조 목사의 40일의 감동(영어)
 13:00 토크콘서트 힐링유
 13:40 비전타임 - 김양재 목사
 14:40 비전타임 - 마크 최 목사
 15:20 내 인생을 바꾼 한 말씀
 15:40 파워타임 - 이영훈 목사(영어)
 16:20 웨인 코데이로의 알로하 주님
 16:50 새벽나라
 17:00 나는야 주의 어린이
 17:30 2013 목회사관학교
 19:00 비전타임 - 박완철 목사
 19:40 충성! 은혜로軍
 20:20 파워타임 - 이찬수 목사
 21:00 CGNTV 맞춤형강 <나침반>
 21:50 김용의 선교사의 다시 복음앞에
 22:50 새벽기도회
 23:30 [드라마] 팬인가 제자인가
 00:00 CCC 드림워십
 00:40 2013예배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
 01:40 하용조 목사의 마가복음강해(영어)
 03:10 주영훈의 편안한 북카페
 03:50 비전타임 - 김형준 목사

sat

토
 05:00 새벽기도회(LIVE)
 05:40 CGN WORLD REPORT
 06:00 생명의 삶
 06:20 파워타임 - 김지철 목사
 07:00 파워타임 - 김인중 목사
 07:40 햇불회 강좌
 08:30 SALT & LIGHT
 09:10 최신애의 행복한 식탁
 09:50 나는야 주의 어린이
 10:20 파워타임 - 이재철 목사
 11:00 2013 예배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
 12:00 충성! 은혜로軍
 12:40 CGNTV 맞춤형강 <나침반>
 13:20 브라보! 마이 라이프
 14:00 파워타임 - 유진소 목사
 14:40 비전타임 - 이규현 목사
 15:40 비전타임 - 진재혁 목사
 16:20 예수님이 좋아요
 16:40 조셉 프린스의 은혜
 17:40 젊은이를 위한 예배
 19:00 하용조 목사의 40일의 감동(영어)
 19:40 독수리 5형제
 20:20 토크콘서트 힐링유
 21:00 유재건의 크리스천 CEO를 만나다
 21:50 반갑습네다
 22:30 내 인생을 바꾼 한 말씀
 22:50 새벽기도회
 23:30 맥스 루케이도의 10분의 혁명
 00:00 비전타임 - 정근두 목사
 00:40 손기철 장로의 말씀치유집회
 01:40 비전타임 - 김승욱 목사
 03:50 파워타임 - 김창근 목사



CGNTV는 많은 분들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순수복음방송'입니다. 선교를 위한 선교사! 선교지를 품은 여러분의 손길은 세계 각국에 복음으로 선포되어 생명을 꽃피울 것입니다.

후원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CGNTV 방송사역 후원

1) 정기후원

- (1) CMS 자동이체(Cash Management Service)
give.cgntv.net '정기후원하기' 정보를 입력하시면 금융결제원 등록을 거쳐 선택하신 출금일(매달 5일, 15일, 25일 중 택일)에 자동이체 후원이 시작됩니다.
- (2) 은행 자동이체
은행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인터넷 뱅킹 자동이체를 통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 하나은행 573-910002-67804 ❖ 우리은행 1005-801-017847
- ❖ 외환은행 630-004878-302 ❖ 국민은행 225101-04-006695
- ❖ NH농협 301-0072-3639-01 [예금주 : (재)온누리선교재단]

2) 일시후원

- (1) give.cgntv.net '일시후원하기' 를 클릭한 후 신용카드, 휴대폰, 계좌이체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2) ARS 전화후원 : 060-700-1660 (한 통화에 5천원)
- (3) 후원계좌번호 : 하나은행 573-910002-67804 (후원문의: 02-796-2243)

3) 기도후원

CGNTV가족의 일원으로 정기 기도모임을 통해 CGNTV를 지원하고 격려하실 수 있습니다.

- 모임 시간, 장소 ❖ 매주 금요일 아침 10시 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신관 1층 카페방
- ❖ 매달 첫째, 셋째 주 월요일 오후 2시, CGNTV 본사 1층 세미나실

2. 드림온 캠페인-선교지 안테나 설치 후원

본 후원은 세계 9개 권역 170여 개 나라 선교사들에게 위성 안테나를 지원하는 캠페인입니다. 선교지를 직접 선정하실 수 있습니다.
(* 후원지역-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유럽, 북미, 남미,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 (1) 인터넷 신청 : give.cgntv.net '드림온 캠페인' 을 클릭하신 후 신용카드, 휴대폰 계좌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2) 계좌입금 : 하나은행 573-910007-69605 [예금주 : (재)온누리 선교재단]

* 문의: 02-796-1118

CGNTV 실행위원회

김종건(위원장) 김용기 김종성 배종수 이광형 이인용

CGNTV 운영위원회

정상건(위원장) 강경국 강기석 강신의 구재영 권득한 김관근 김관식 김두진 김명세 김명철 김성목 김성진 김수광 김영길 김 인 김장렬 김정온 김정훈 김종수 김종호 김현중 김형식 김홍국 김희준 남상욱 문영기 문애란 박상송 박은영 박찬구 박현규 박해연 서정호 서춘희 선우석 손한기 송영태 신철우 양유식 양재수 양주현 오진권 유병진 유인선 유주희 유철호 유 형 윤덕순 윤원식 윤현진 이관수 이국주 이남식 이덕한 이병하 이석일 이영희 이용경 이용만 이은경 이장수 이호영 이희연 임진욱 장양희 정광택 정병규 정영기 정용주 정진호 조옥형 지성환 차준한 추말자 최도성 최득린 최훈학 하성기 한형식 함승아 홍혜실 황상윤



CGNTV와 함께 "땅끝 선교사"가 됩니다

10월 6일

Christian Global Network Television

10월 6일은 CGNTV의 정기후원행사가 있는 날입니다.

“한 영혼! 아마존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CGNTV를 만든거예요”
<故하용조 목사님 말씀 중에서>

그 한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면 CGNTV 사역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CGNTV와 함께 "땅끝 선교사"가 되어주세요.

<CGNTV와 함께 "땅끝 선교사"가 되는 방법>

- ① 10월 6일 후원약정행사 참여 / ② CGNTV 홈페이지 www.cgntv.net 후원배너 클릭
- ③ 전화문의. 02)796-2243 / ④ ARS 후원. 060-700-1660